



▶ 녹색성장과 정보보호의 연관성을 찾다

: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지난 5월 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정보보호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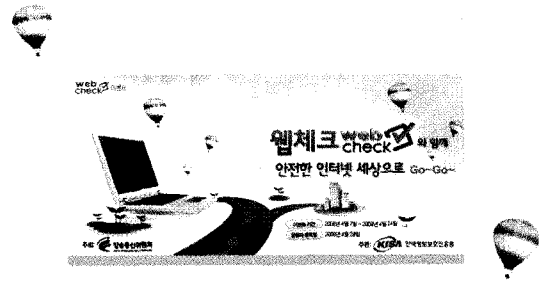
미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전자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보보호의 역할과 저탄소·친환경 정보보호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된 것. 특히 정보보호의 효과를 저전력·저탄소 측면에서 평가하려는 시도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날 초청강연자로 나선 고려대 임종인 교수도 "정보보호는 그린 IT의 핵심 파트너"라고 역설하면서 "정보보호는 'IT 부문의 그린화'를 통해 녹색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 체크(Web Check) 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 올 하반기 정식 서비스 가능할 듯



방통위와 KISA가 공동 개발한 '웹체크(Web Check)' 시스템(웹사이트 보안수준 확인시스템)이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Web Check는 이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 KISA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해당 웹 사이트의 보안수준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시범서비스가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1차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사용자 편의성과 성능을 추가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후기를 제출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KISA는 1차 개발된 Web Check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향상된 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 배송정보 조회 서비스 개선된다

: 분쟁조정위 제도개선 결정

인터넷 배송정보 조회 서비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도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 조회 서비스가 개인정보 악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신청인 A씨가 배송업체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신청인 A씨는 채권 추심업체 직원이 인터넷 배송정보 조회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규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윤대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KISA, 원대협 양해각서(MOU) 체결

: 원격 교육분야 정보보호 발전 위해 협력하다



KISA와 한국원격대학 협의회(이하 원대협)가 원격교육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인식활동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

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보호 분야의 인적교류,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보급 및 확산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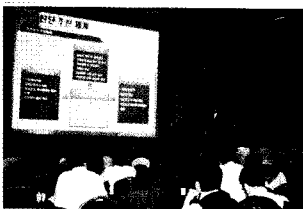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KISA는 원격대학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원격대학의 정보보호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대협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KISA는 지금까지 18개 원격대학 중 14개 원격대학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ISMS 인증 취득 과정에서 이들 원격대학 교육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 받고 있다.

On the Road

▶ 안전진단 실시 그 이후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기업 정보보호 전략 모색



지난 5월 7일 KISA와 방통위가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기업 정보보호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성과와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이슈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T 컴플라이언스, 위험관리, DDoS, 최신 해킹·바이러스 동향 등 역기능과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정책적 이슈, 정보보호 기술 및 대안 수립에 대한 내용이 함께 소개됐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KISA IT 기반보호단 원유재 단장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을 통해 보안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업자가 전체의 86.1%로 나타나, 기업들이 안전진단 제도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보보호 문제가 투자의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SA 설립 13주년 기념식

: 원내외 표창, 우수 직원 시상



지난 1996년 한국정보보호센터 설립으로 첫발을 내딛은 KISA가 지난 4월 10일 설립 13주년 기념식을 갖고 KISA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방송통신 융합, 개인정보보호 등 그 어느 때보다 정보보호와 KISA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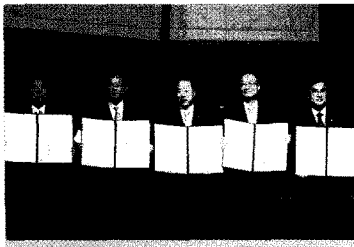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원내 및 외부인사 표창과 우수 직원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한편, KISA는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8일 전현직 KISA 임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홈커밍 및 한마음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 정부 5개 부처 정책공조 및 공동캠페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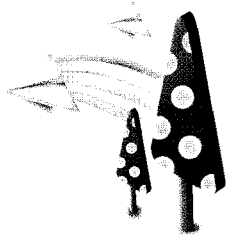
지난 5월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정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다.

사이버 질서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5개 부처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53개 민간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5개 정부부처는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공동행사를 개최해 민간부문과 공동협력해 나가고,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보호, 불법 게시물 등에 대해 시기별 중점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인터넷 상의 범질서 확립,

올바른 인터넷 문화형성, 수사 공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에도 뜻을 같이했다.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도약

: 보안서버 보급률 국가 순위 35계단 상승

방통위와 행안부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9년 세계 IT 보고서(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에 포함된 유일한 정보보호분야 국가지수인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008년 51위에서 2009년 16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아이디/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함으로써 해킹 등의 불법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대책이지만, 그동안 국내 보급이 미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버 보급 종합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실태점검, 제도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을 유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국내 보급률이 크게 개선돼 이번에 국가 순위가 크게 향상됐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까지 35,347대를 보급하는 등 금년에는 48,000대의 보안서버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성장 정책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